

한국토양비료학회장에 이승헌 농어촌공사 처장 선출

✎ 김수나 기자 | Ⓞ 승인 2024.10.28 13:58

2025년부터 임기 시작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한국토양비료학회 차기 회장에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공사) 환경관리처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시작이다.

1968년에 설립된 한국토양비료학회는 토양 및 식물영양 비료, 농업환경 분야 기초연구와 그 응용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고, 회원 간 학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다.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환경
관리처장. 한국농어촌공사 제
공

지난 24~26일 제주에서 열린 제56차 총회 및 정기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된 이승헌 처장은 토양전문가로 서울대 농화학과에서 토양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공사에 입사해 본사와 부설 기관인 농어촌연구원에서 일하며 농업환경에 대한 연구개발과 정책 지원, 사업 개발을 주로 담당해 왔다.

공사는 이번 선출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토양의 질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공사 업무와의 시너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나 기자 ssuk316@naver.com

이승헌 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 한국토양비료학회 회장 선출

✎ 박세준 기자 | Ⓞ 승인 2024.10.30 11:14 | ☐ 호수 4140 |
☐ 19면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이 지난 24~26일 제주에서 열린 제56차 한국토양비료학회 총회·정기학술대회에서 내년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임기는 1년이다.

한국토양비료학회는 토양·식물영양 비료·농업환경 분야의 기초연구와 응용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발전을 보급하고 학술정보 교환을 도모하기 위해 1968년 설립된 국내외 전문가 집단이다.

이 처장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토양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농어촌공사에 입사해 농어촌공사와 공사 부설기관인 농어촌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농업환경 연구개발을 통한 정책지원과 사업개발을 주로 해왔으며 학회 활동도 활발해 올해도 한국환경농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세준 기자 sejpark2002@afnews.co.kr

이승헌 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 한국토양비료학회 회장 선출

윤 강혜란 기자 | 승인 2024.10.29 15:10

"지속 가능한 농업 기여하는
토양비료분야 발전 위해 노력할 것"

(한국농업신문= 강혜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이승헌 환경관리처장이 지난 24일부터 26일, 제주에서 열린 제56차 총회 및 정기학술대회에서 2025년도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전했다.

‘한국토양비료학회’는 토양, 식물영양 비료 및 농업환경 분야의 기초연구와 그 응용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발전의 보급과 회원 상호 간의 학술정보 교환을 도모를 목적으로 1968년도에 설립한 국내외 전문가 집단이다.

이승헌 처장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토양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지난 1996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본사와 부설기관인 농어촌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농업환경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한 정책지원과 사업개발을 주로 해 오고 있으면서, 토양 전문가로 학회활동도 열심히 하여 학계가 아닌 산업계에서 학회장을 하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게 됐다.

이승헌 처장은 올해 한국환경농학회 회장으로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 주안점을 둔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내년부터는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여하는 토양비료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11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농어업인의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의 근간이 되는 토양의 질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한국 농어촌공사 업무와의 시너지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혜란 기자